

# 직장인 일상회화 완전정복 1단계

## - 영어가 쉬워지는 회화 기초패턴편

### Script

#### 리스닝 인트로

문제를 듣고 가장 적절한 답을 고르세요.

☞ What brought you here?

- A. I brought some food.
- B. I'm here to meet with Miss. Lee.
- C. I don't know where it is.

여길 어떻게 오셨나요?

- A. 제가 음식을 좀 가져왔습니다.
- B. 미스 리를 만나러 왔습니다.
- C.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.

#### [이 과의 학습목표]

1. I'm here to + 동사원형 의 문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.
2. 오늘의 문장: "I'm here to meet with Young."

#### 강의 보기 - Main Dialogue

Young: What brought you here?

Young: 어떻게 오셨죠?

Lisa: I'm here to meet Young.

Lisa: Young 만나러 왔습니다.

Young: Let me find him for you. Could you wait just a minute?

Young: 제가 찾아드릴게요. 조금만 기다려주시겠어요?

Lisa: Sure. Thank you.

Lisa: 물론이죠. 감사합니다.

#### 강의 보기 - Small Talk

☞ 사무실에 한 무리의 대학원생들이 우르르 들어온다.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논문 쓸 때 필요한 설문조사를 하려는 모양이다. 역시 친절한 Young.

Dialogue - 1

Lisa: We're here to do a survey about marketing skills.

(Lisa: 마케팅 기술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러 왔습니다. )

Young: Put them on the table and take a seat.

(Young: 그거 테이블 위에 놓고 좀 앉으세요.)

☞ 이것 저것 신경을 썼더니 머리가 많이 아픈 모양이다. Young은 잠시 외출증을 끊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오는데……

Dialogue – 2

**Lisa: How can I help you?**

(Lisa: 어떻게 도와드릴까요?)

**Young: I'm here to buy something for a headache.**

(Young: 두통약 좀 사러 왔어요.)

☞ Young은 퇴근하기 전 아내를 위해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가기로 결심했다. 과연 아내의 취향에 맞춰서 잘 사갈 것인가?

Dialogue – 3

**Lisa: May I help you?**

(Lisa: 뭘 도와드릴까요?)

**Young: I'm here to buy some ice cream.**

(Young: 아이스크림 좀 사러 왔어요.)

## One more Tip!

**ache / pain / sore 의 차이는?**

ache 는 통증

pain 는 갑자기 아픈것(약간 강하게).

sore 는 근육이 저리는 것 (알배겼다)